

여름휴가 제안 II

배낭속 불서 한두권 더위 잊는데 제격

명상집도 좋고...사찰안내서도 좋고

여름 휴가철이 곧 시작된다.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사람들은 휴가 일정을 짜는 이외에 다른 생각이 없을 정도로 온통 '휴가생각' 뿐이다. 그러나 막상 휴가길에 나서보면 일상보다 더 번잡한 것이 우리네 여름휴가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에는 아예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피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망서(忘暑)' 즉 더위를 잊는 경지로 들어가 볼까? 평화와 자비, 그리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가득한 이 책은, 일기형식에서 짧은 시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깨어 있는 삶으로의 여행(문화사랑), <수비시(자율과모음), 행복·사랑·수행·지혜·죽음 등 다섯 주제별로 엮은 도서출판 한세의 '오색시리즈' 등도 휴가길에 동행해도 좋을 책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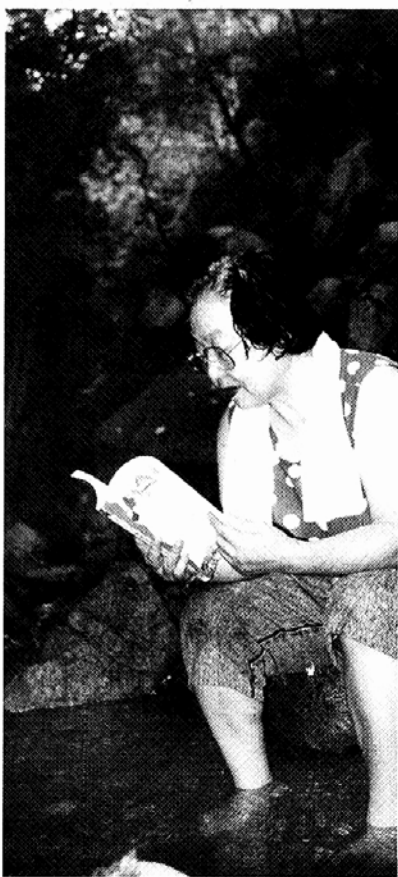
전국 어디를 가든 사찰 한두 곳을 만나기 마련이다. 푸른 숲과 계곡을 지나 만나는 사

찰, 그냥 둘러보기보다는 사찰에 얽힌 이야기와 여러 전각들과 불구들의 의미를 새기는 감흥은 남다르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이 실감난다. 서점가에 나와있는 이런 책들은 대부분 '사찰'이란 이름을 단 것이다. <문화유산-명찰>(한국문화), <절로 가는 마음>(책만드는집), <사찰 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돌베개), <절안의 생활 절속의 문화재>(다할미디어)를 비롯 사찰문화연구원의 '전통사찰총서' 등은 사찰여행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 주는 책이다. 이들 사찰관련 책들은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안내서로서의 실용성 못지 않게 읽는 재미 또한 솔솔하다.

피서 가는 데 '엔 불서'라고 할만한 사람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눈맛이 좋은 책을 권하고 싶다. <산사의 미를 찾아서>(다른세상), <그림으로 보는 불교이야기>(꿀빛), <종경>(이레), 무심(찬섬) 등은 사진과 그림만으로도 책 읽는 즐거움에 흠뻑 빠져들게 한다.

배낭의 부피 때문에 부담스런 사람들은 여시아문 '주머니속 대경경시리즈'나 '빛깔 있는 책들'을 챙겨볼 만하다. 물론 이보다 더 편하게 지니고 다니며 수시로 읽을 수 있는 불서도 있다. 손바닥만한 크기로 제작된 법정 스님의 <산에는 꽃이 피네>(동쪽나라), 정찬주 씨의 <길잡이는 곳에 암자가 있다>(해들누리), <법구경>(민족사)등 작은 경전 시리즈 등이 바로 그것.

김종근 기자(gamja@buddhopia.com)



◇계곡물에 발 담그고 불서 읽으니 무더위 끝.

한옥이 아름다운 까닭은

신영훈씨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한옥'

신영훈씨가 되면서 하나둘씩 사라져 가는 한옥.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옥>(현암사)은 우리의 한옥을 바로 알아 살림집으로 되살리자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옥의 미학을 조명하는 책이다. 글쓴이 신영훈 씨는 호를 목수(木壽)라고 불일 정도로 우리의 전통 목조 건물 짓기와 연구에 평생을 바친 최고의 목수. 그런 만큼 이 책 곳곳에는 한옥에 대한 살뜰한 애정과 현장감이 짙게 배어있다.

글쓴이가 말하는 한옥의 특징 세 가지, 기단이 높고, 처마가 있고, 인적이 있다는 것이다. 기단이 높은 것은 습기를 조절하기 위함이고, 깊은 처마는 삶을 편하게 해주고, 우리 몸에 맞게 조화로운 크기는 하나의 인격체

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한옥의 특징 뿐 아니라 한옥 짓기의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한옥이란 무엇인가'에서는 한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한옥의 집터, 구조, 종류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한옥 짓기'에는 실제 한옥 짓는 과정이 실려 있다. 설계와 시공에서부터 기둥, 처마, 지붕, 난방, 마루 깔기, 도배, 대문, 마당 꾸기 순서로 집짓기 과정 등이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다.

전통적인 한옥 짓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옥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이 책의 중요한 성취다. 또 우리의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한옥 아이디어도 곳곳에 소개하고 있어 정보

가치도 다채롭다. 여기에 사진작가 김대벽 씨가 촬영한 300여 컷의 사진은 한옥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들게 한다. 특히 사진설명에 한옥용어를 적절히 구사하고 있어 한옥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여준다. 또한 이 책은 한옥의 건축 기법이 사찰건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절집 이해의 길잡이로도 활용할 만하다. 값 2만8천원. 김종근 기자



'철학적 대화' 빠진 원효와 아스퍼스

신옥희 교수 '일심과 실존'

7세기 한국불교 철학의 대표적 사상가 원효 스님과 현대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아스퍼스의 철학적 대화를 담은 <일심과 실존>(이화여자출판사)이 나왔다. 이 책은 원효의 대승불교 철학사상과 아스퍼스의 실존주의 철학사상을 비교 연구하면서 두 사상가의 실재관·인간관·윤리관 및 종교관의 근본을 조명하면서 두 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고 있다.

그 한 예로 두 사상가의 실재관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자. 원효 스님의 일심사상과 아스퍼스의 포괄자론은 주객도식과 지평성이라는 인간의 인식론적 근본 상황에 대한 비판적 지각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계의 절대 부정을 통하여 세계의 절대 긍정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반면 원효 스님과 아스퍼스의 사상은 초월되기 어려운 만큼 서로 다른 이질적인 측면들을 내포하고 있다. 원효 스님의 사유초월은 존재 자체와의 직접적 합일에 이르러 존재의 평화와 안정을 성취하지만, 아스퍼스의 초월은 언제까지나 존재와의 완전한 합일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존과 초월자는 주객 분열의 근본 상황 속에서 암호 문자를 통하여 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글쓴이 신옥희 씨는 동양적 전통과는 이질적인 서양적 사고 방식에서 우리의 전통적 사고 방식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변혁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값 1만원. 김종근 기자



새로 나온 책

▲염불신행의 원리와 비결(정목 지음, 경서원)= 염불신행의 원리와 효과적인 방법을 담은 정토신앙의 길잡이. '불교의 광명철학'을 시작으로 '정토신앙의 오묘한 도리', '참조적인 염불수행'에 이르기까지 무량광을 이루려는 아이타불의 염원과 범부의 깨달음을 통해 염불수행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또 부록으로 신라·고려·조선 후기의 염불수행도 수록. 우리 나라 염불수행의 변천사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돕는다. 값 7천원.

▲깊이 갈 수 없는 곳(김재운 지음, 달과 나무)= 현직 군법정사가 쓴 시집으로 우주, 별, 그리고 사람 편으로 엮여 있다. '우주'편에서는 우리 속의 안쪽 자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담겨 있고, '별'편에서는 참 자아와 우리의 의식간의 이야기와 교감. '그리고 사람'편에서는 인간으로서 시인의 목소리가 녹아 있다. 값 7천원.

▲뱃속까지 내려가서 새라(나탈리 골드버그 지음, 권진욱 옮김, 한문화)= 25년 여간 선과 명상 수행을 통해 터득한 글쓰기 방법론. 글쓴이가 말하는 비밀은 글을 덧붙이거나 보태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기'의 법칙이다. 이러한 독특한 방법은 '비워내기' 과정을 강조하는 선수행을 통해 얻어낸 결실이다. 값 9천8백원.

▲근원에 머물기(엔 마렌·도로서 매디슨 편집, 나중욱 옮김, 한문화)= 이상과 직관의 벽을 허문 근대 인도의 스승 스와미 비베카난다(1863~1902)의 어록집. 이 책은 미국 전역에 있는 50여명의 베타나 학자들이 비베카난다의 강론, 담화, 서신, 인터뷰 등에서 중심이 되는 가장 요긴한 부분만을 가려 뽑았다. 값 9천8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어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전통사찰음식	적 문	우 리
2	지대방 이야기	송광사 권영	법 공 양
3	법구경(작은경전1)	지 현	민 족 사
4	영가전도	우 통	효 림
5	만행-하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립
6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래 라	문 이 당
7	5216일 명상채원기	김 남 선	불 광
8	티벳 해탈의 서	피터 해버	정신세계사
9	화두놓고 염불하세	인 광	불 광
10	선방일기	지 허	역시아문

도서 안내:(02)737-0695

7년 암자기행 마치며 "암자짓고 철마다 안거"

'암자에는 물 흐르고...' 펴낸 정찬주씨



"산길에 떨어져 구르는 것이 어찌 낙엽뿐일까. 일주문 안으로 들어서니 석양의 햇살도 가랑잎처럼 떨어져 나뭇잎과 같다. 여기가 바로 희망 스님이 최치원과 시문을 나누었다는 지족암..."

소설가 정찬주 씨가 내놓은 <암자에는 물 흐르고 꽃이 피네>(민족사)는 가야산 지족암 일주문에 발을 내디디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글쓴이는 팔공산 부도암을 거쳐 장성 백암사 운문암에 이르기까지 30곳의 암자를 찾는다.

합천 가야산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의 삼천매화 화두로 살아 있음을, 봉화 태백산 도솔암에서는 성불을 위해 자신의 손가락 열두 마디를 기증함에 태운 일타 스님의 그림자를 또렷이 본다. 그런가 하면 천불의 형상을 이룬 천불동이 한눈에 들어오는 설악산 금

강굴, 만리를 불어온 바람에 온갖 약초들이 향기를 풍기는 해발 930미터의 속리산 상고암, 서해의 일몰이 동백꽃잎처럼 떨어지는 두문산 진불암 등에서는 암자 풍광 자체가 하나의 장엄한 설법이라는 사실에 힘입어 발길을 옮기지 못한다.

글쓴이가 7년여 동안 찾았던 암자는 1백 여곳. 그 결과물이 <암자로 가는 길>,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암자가 들려준 이야기>이다. 이번엔 출간된 책은 암자기행의 완결편인 셈이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 동안 오진된 암자를 찾기 위해 미루어 두었던 암자들을 중심으로 엮었다.

글쓴이는 이제는 암자기행을 접고 화순 운주사 근처에 암자를 지어 철마다 안거에 들고 만행하는 납자들에게 공양도 올릴 생각이라고 말한다. 그레



일까. 이 책에는 그 동안 암자기행과는 달리 '새벽 예불에 띄우는 편지' 18편이 새롭게 수록돼 있다. 성철·법진 스님, 그리고 중국의 초소에서 육조 스님 등에게 띄운 글들이다. 이 글들은 모두 응답이 없다. 하지만 고승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구겨진 삶을 비취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값 1만2천원. 김종근 기자

초기에 스님들은 과연 어떻게 생활하였을까? 초기 불교 교단 생활

부처님 제세시와 일반 직후의 초기 불교 교단 내의 여러 가지 생활 상들을 다양한 전거들을 토대로 정리한 책

출가 및 구족제 제도, 안거와 모살 및 자제제도, 승가의 의식주, 계율, 갈마제도 등 부처님이 제정하신 다양한 제도와 구조, 계율과 생활 모습 등에 대해, 만들어지게 된 동기와 과정,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여법한 절차 및 종류 등에 대해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태원스님 저/신국판양장/348쪽/값 13,000원

밀교란 과연 무엇인가? 밀교학개론

종합불교, 살아 있는 진정한 불교로서의 밀교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책

밀교의 기본적인 특징 및 그 전개과정, 밀교의 핵심 중 하나인 다라니와 란트라리의 의미, 밀교의 교판론 및 핵심 교리, 매일여래를 중심으로 한 불신론, 밀교의 상징적 표현인 만다라를 통한 인식론, 밀교의 성불론, 각국에서의 밀교의 전개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밀교에 대한 여러 오해와 편견들을 분석하고 있다.



종석스님 저/신국판양장/256쪽/값 10,000원

신인간이 드러나고 있다!!!

www.goldenflower.co.kr
신인간을 위한 멀티미디어 쇼핑몰

30-5% 할인



사이트 오픈 기념 특전

- ① 신비감이 감도는 '신성무(神性舞)' 명상 음악 테잎(5,000원) 무료 증정.
- ② 무료로, 인도 '오소 명상 휴양지(12월 13일)'를 다녀올 수 있는 추천 기회 부여.
 - 대상 - 투어 경비 전액 지원(140만원 상당)
 - 1등 - 투어 경비 50% 지원(70만원 상당) 외 경품다수
 - 추첨일: 10월 16일, 투어 일정: 12월 6일(수) - 12월 18일(월)
- ③ 투어 참가시, 투어비용 10만원 할인

행사 기간: 10월 15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전화 주문: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황금꽃